

CPS 수정(안)

# 몽골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Mongolia

2020. 6.

관계부처 합동

본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목 차

I. 전략적 중요성 .....	1
1.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	1
2. 몽골 개발협력 수요.....	1
3. 對몽골 ODA 추진 SWOT 분석.....	2
II. 수원국 분석 .....	3
1.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3
2. 수원국 수원체계.....	8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0
1. 기본 방향.....	10
2. 분야별 수요 분석.....	11
3. 분야별 지원 방안 .....	19
4. 이행점검방안 .....	23
IV. 이행전략 .....	25
1. 협력 및 효과성 제고방안.....	25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27
1. 모니터링 방안 .....	27
2. 평가 계획 .....	28

## I. 전략적 중요성

### 1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

- **(대외정책방향)** 정부의 대외협력 정책인 신북방정책에 부합
  -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중국·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국가들과 협력 확대를 추진 중
    - 특히, 한·몽 수교 30주년(2020년)을 계기로,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기대됨
-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 경제·안보 관계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
  -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한 몽골은, 동북아 경제 및 안보공동체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함
    - 향후,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거쳐 국가 간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산업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협력 가능성)**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아국과 지속적인 협력 전망
  - 세계 10대 자원부국(석탄, 동, 금, 철광석 등)인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하에 '17년 IMF 체제 수용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한국은 몽골의 수입국 중 4위이며, 인구 3백만의 비교적 작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한류 영향으로 상품·서비스·인적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 몽골 개발협력 수요

- 아국이 강점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등 개발 수요
  - 몽골 정부는 수도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인근에 스마트 도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한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기대됨



- 특히, 도로, 수자원, 주택건설 등 사회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ODA 또는 PPP(민간투자) 형태의 개발자원 수요가 확대될 전망
- 몽골 정부는 ‘중장기 전력에너지 발전 전략(2015-2035)’을 통해 에너지를 다각화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추진중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증대시키기 위해, 세제 개선, 금융시스템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개발수요가 기대됨

□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기후 환경 관련 개발 수요

- 몽골은 울란바토르 인구집중 및 게르(Ger)지역 화로 사용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음
-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게르지역 재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주택 건설, 난방인프라 개선 등의 개발 수요가 기대됨

### 3 對몽골 ODA 추진 SWOT 분석

- **(강점 : Strength)**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몽골 정부 개발 협력 수요(인프라, 에너지 등)에 대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아국의 경험을 몽골에 효과적으로 전수 가능
- **(약점 : Weakness)** 몽골의 가장 큰 국가 이슈인 대기오염 문제가 중점 협력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협력 지원비중이 저조
  - 반면 우리의 중점 협력 분야인 교통의 경우 몽골은 그간 중국을 파트너로 선호해온 경향
- **(기회 : Opportunity)** 아국의 신북방정책 등 대외협력 정책 기조 변화를 계기로 몽골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확대
  - 아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향후 전염병 대응 등 보건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위협 : Threat)** 금년 총선('20.6월)에서 여당인 인민당이 압승하여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하였으나, 내년 대선('21.6월) 결과에 따라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 가능성
- 특히, 총선 이후 발표된 **몽골의 신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참고) 對몽골 ODA SWOT 분석 표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정부의 주요 개발협력 수요(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비교우위 보유</li> <li>○ 과거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의 경험 전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의 가장 큰 국가 이슈인 대기오염 문제가 중점협력 분야에 포함되지 않음</li> <li>○ 몽골은 아국의 중점협력분야인 교통에 대해 중국을 파트너로 선호하는 경향</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국의 신북방정책 등 대외협력 정책 기조 변화를 계기로 몽골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확대</li> <li>○ 아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 확대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대선('21.6월) 결과에 따라 정국 불안정성 초래 및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가능성</li> <li>○ 몽골의 신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li> </ul>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 몽골 장기개발정책(Vision 2050)

- 몽골 정부의 ‘Vision 2050’은 2019.4월 후렐수흐 총리가 한국, 중국과 같은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지시하여, 몽골 총리령 제52호에 의해 학자, 연구원 등 총 1,500명이 투입되어 완성되었음
- 동 개발정책은 1992년부터 추진한 51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전 ‘Vision 2030’에 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국민의 생활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설립하였다는 평가
- ‘Vision 2050’은 9개 부문, 50개의 개발목표, 187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2020.1월 내각회의 통과 후 5월 국회에서 국가개발계획으로 확정되었음

#### < 몽골 장기개발정책(Vision 2050) >

개발 부문	세부 과제
① 문화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등 대외적인 평가제고</li> <li>- 유목민 문화와 전통 글씨 등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확대</li> </ul>
② 인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보건, 가정, 기술 및 혁신, 삶의 환경, 노동시장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책 수립</li> </ul>
③ 삶의 질 및 중산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비중을 16.2%에서 80%까지 확대</li> <li>- 근로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가계 소득 안정화를 꾀하는 등 중산층의 점진적 증가 추진</li> </ul>
④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까지 총GDP를 777억달러, 1인당 GDP를 15,000달러</li> <li>- 기존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 제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 에너지산업, 운송업, 관광업 등 업종 중심 개발</li> </ul>

⑤ 바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정부, 전자정부, 능력 있는 공무원, 인권 보호, 뇌물 없는 정부 구성 추진</li> <li>- 1992~2017년간 총 14번 정권교체로 정책의 일관성이 낮았던 바, 정책일관성 확보 노력 경주</li> </ul>
⑥ 녹색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획적 도시 확대, 인프라 부족, 낙후된 장비, 빈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심각</li> <li>- 국민 삶의 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개발 계획 추진</li> </ul>
⑦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력 강화, 인권, 자유, 사회규칙, 안전한 생활환경 등으로 재난 리스크를 감소시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li> </ul>
⑧ 지역중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을 6 개(서부, 항가이, 알타이, 중앙, 고비, 동부) 지역으로 분류해 국가 안전,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역사, 문화 등 기준으로 각 지역 중심의 개발 계획 수립</li> </ul>
⑨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전체 면적의 0.3%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으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 발생</li> <li>- 인구 밀집도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도시 개발 계획 추진</li> </ul>

- ‘Vision 2050’은 기존 개발계획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자 몽골 정부가 미래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으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었음
- 기존의 ‘Vision 2030’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금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IT산업발전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산업발전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을 강조함
- 계획의 시행을 위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145조 투그릭(52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개발,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187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파악됨



□ **몽골정부 행동계획(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20-2024

- 몽골 의회는 2020년 이후 5년에 대한 중기개발전략으로 ‘몽골정부 행동계획 2020-2024’을 승인하였음<sup>1)</sup>.

\* 2016~2020년에 대한 첫 번째 몽골정부 행동계획에 이은 두 번째 행동계획이며, 몽골정부의 장기개발전략인 Vision 2050을 기반으로 함.

\*\* 정부부처, NGO, 기업, 학계 및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 및 세부전략을 반영한 내용임.

- COVID 19,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도시·지역개발 등 6개 개발부문에 대해 사회,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 정책을 제시함.
- **(기본 원칙)** △경제다원화, △중점분야 성장에 대한 정책 지원, △수출확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산업육성 전략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정책)** 6개 주제별 개발 부문별은 다음과 같음.

세부 정책	핵심 내용
COVID 19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사회	몽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산층 확대,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건, 문화, 교육,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
경제	거시경제 환경 개선, 중기 경제난 타개, 지속가능 성장, 우선 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시
환경개발	합리적 자원활용, 환경파괴 감소, 건강한 생활환경 개선, 기후 복원력 강화,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시
거버넌스	법치주의, 공공서비스 원칙 강화, 관료주의 개선, 평등한 공 권력 적용,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및 ‘디지털 몽골’정책 제시
도시·지역개발	지역개발, 인프라 강화,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의 도시계획 개선

\* 디지털 몽골(Digital Mongolia)은 몽골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

1) <https://montsame.mn/en/read/233461> 및 <https://montsame.mn/en/read/235001> 에 나타난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 추후 영문 버전 공개 시 확인 및 수정 필요



### □ 수원 체계

- 몽골은 재무부가 ODA와 관련 총괄을 담당하며, 관련 업무는 재무부 내 개발재원국(Development Financing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음.
- 개발금융부채국 아래 유무상원조정책과로 구성됨.
- 재무부는 관련 부처가 작성한 제안서의 접수 및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 원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함

### □ ODA 사업 추진체계

- ① **(무상원조)** 내각령(No.176, '16.3월)에 의거,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중
  - 재무부는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취합하여 차년도 대외 무상원조 사업 관련 우선순위 사업을 준비
  - 재무부는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공여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후보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각 공여기관에 송부
- ② **(유상원조)** 재무부 장관령(No. 196, '15.7월)에 따라 추진 중
  - 재무부는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취합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준비 및 내각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 차관공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F/S 작성 후 필요시 관련 위원회\*에서 F/S 검토
  -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에너지 관련은 과학기술위원회(Science and Technical Committee, STC), 건축 관련은 건축개발센터(Construction Development Center, CDC) 등
  - 사업실시기관, 관련 위원회/유관부처 검토 완료 후 내각 앞 정부 결의안 승인 요청

### Ⅲ.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 기본 방향

##### 몽골 장기개발정책 Vision 2050

총 GDP 777억불, 1인당 GDP 15,000달러 달성,  
중산층 비중을 16.2%에서 80%까지 확대,  
국가브랜드 평가제고 및 문화 콘텐츠 개발,  
국민 삶의 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개발 계획 추진 등

##### 몽골정부 행동 계획 2020-2024 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핵심내용) COMD 19,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도시·지역개발 등 6개  
개발 부문에 대해 사회,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 정책  
(기본원칙) △경제다원화 △중점분야 성장에 대한 정책 지원 △수출확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산업육성 전략  
(세부정책) △COMD-19, △사회정책 △경제정책 △환경개발 △거버넌스  
△도시·지역개발

##### 한국의 지원목표

-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취업률 증가를 위한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제도,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지원,
- 비전염성 질병 예방 지원 및 지역별 식수위생 편차 극복 지원,
- 지속적인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통한 공공행정 분야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원,
- 교통인프라, 교통정책, 시설, 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종합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한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통한 **몽골의 종합적 국가 발전 및 SDGs 이행 지원**

#####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 교육 분야

- 고등교육 및 중·고등기술교육 환경 개선 교육기회의 공평한 접근성 증대

#####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비전염성 질병 및 중독성 물질의 통제 및 예방 확대
-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관리 역량 강화

##### 공공행정 분야

- 전자정부 확대를 통한 공공행정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교통 분야

- 운송, 물류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

##### 기후환경 분야

- 수질, 대기질 및 기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제고



## (1) 교육 분야

## □ 개발수요

- 1990년대 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및 공공부문에 대한 주변국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었던 공교육 지원이 강화되어, MDGs 목표 중 초·중등 교육 분야 목표를 달성함
- 초등학교 등록률(92.6%), 청소년 문해율(98.7%), 초등학교 성별 격차(0.96), 중등학교 성별격차(0.99) 등은 대부분 MDGs를 달성했거나,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고등교육의 경우,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국공립 교육 기관에 과반수의 학생이 입학하는 포화상태이며, 2019년도 대학교 입학률이 71.6%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교육환경은 열악한 실정임

## 〈 몽골의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

구 분	1991년	2019년	증가율(%)	비중(%)
고등교육기관	14	94	571%	100%
국공립	14	18	29%	19%
사립	-	76	-	81%
학생 수	20,000	157,625	688%	100%
국공립	20,000	87,992	340%	56%
사립	-	69,633	-	44%

출처: 몽골 통계청 자료

- MDGs 목표 달성 등 괄목할 성과가 있었지만, 청소년 실업률 및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실업자 및 빈곤 감소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청소년 실업률은 2013년 13.3%에서 17.9%(2015)로 증가하였으며, 빈곤율은 28.4%(2018)로서 1995년 36.3% 대비 크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음

- 중등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수가 86개(201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록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교재개발, 실습장비 부족, 교사 역량 미흡 등으로 인해 졸업생 취업률도 62.3%를 하회하고 있음

#### 〈 몽골의 직업훈련 기관 운영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업훈련기관	81	86	83	86
국공립	49	50	50	51
사립	32	36	33	35
학생 수	42,675	40,134	35,831	35,826
국공립	31,572	29,145	25,707	27,712
사립	11,103	10,989	10,124	10,814

출처: 몽골 노동부 자료

- 몽골 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정책, 제도, 훈련환경 개선 및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개발의 수요가 높으며, 이를 위해 직업훈련 촉진 법률 개정, 교사 수준 및 급여 개선, 직업훈련 촉진기금 강화,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 도입이 필요함
- 몽골 교육분야 ODA 사업 추진시 기초교육분야 지원에서 나아가 몽골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직업훈련교육)분야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직업훈련교육 및 고등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우수한 교육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 및 사회 발전이 달성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계은행 보고서는 196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이었던 가나와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을 교육(직업훈련 및 고등교육)을 통해 원활히 개발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ODA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환경(대학교, 연구소, 직업훈련기관 등)이 구축되어 있어, 교육 정책 및 제도, 시설 지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함

##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 개발수요

- 몽골 내 보건 분야 지표로 신생아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 13.4명, 10만명 출산 시 산모사망비 27명 수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이 여전히 낮은 편임
  - \*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 : 15(2015) → 13.4(2018)
  - \* 10만명 당 산모사망비 : 26(2015) → 27.1(2018)
- MDGs 기간 동안 얻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나, 이와 동시에 몽골 주요 질병 변화 추이 및 요인을 보건 분야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존재함
- 몽골의 기후 특성상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체 전염병이나 수인성 질병의 발생 빈도는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빈도가 낮으며, 몽골 정부의 보건정책에 힘입어 예방 가능한 전염성 질환은 감소 추세임
- 비전염성 질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 뇌졸중, 암,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세임
  -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심혈관 질병이 가장 높으나, 질병 이환율이 가장 높은 계통은 호흡기계로 인구 1만명 당 1,712.4명(2018)에 달함

#### < 몽골 주요 질병(2018년 기준) >

순위	분류	질병 이환율 (인구 1만명당)
1	호흡기 질병(respiratory system)	1,712.4명
2	소화기 질병(digestive system)	1,548.4명
3	순환기 질병(circulatory system)	1,149.5명
4	비뇨생식기 질병(genito-urinary system)	932.4명
5	외상 및 중독(injuries and poisoning)	585.2명

출처 :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Health Indicators (2018)

- 음주,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
  - 몽골인은 육류위주의 식습관과 차에 소금을 넣어 마시는 문화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1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 위장질환, 간질환 환자가 지속 증가 추세임을 감안 시 중요한 요인임
  - \* WHO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몽골의 하루 평균 소금섭취량은 권장치의 세 배에 달함.
- 이처럼, 몽골 내 각종 사회, 보건비용을 발생하는 원인인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관련 법률의 수립과 엄격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깨끗한 식수 접근율이 82.5%(2018), 위생시설(하수도, 화장실 등) 접근율이 69%(2018)이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상하수도과 현대식 위생시설 접근이 어려운 게르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력과 적절한 비용 체계, 효과적인 의료 보건 제도 등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몽골의 보건, 의료 분야 개발수요인 비전염성 질환 치료 및 각종 중독성 물질에 대한 예방, 진료, 처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의료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3) 공공행정 분야

#### □ 개발수요

- 몽골 내 공공행정 분야에서 무상지원 전자정부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조달, 전자관세, 지식재산권, 국가등록, 출입국 시스템, 국유재산, 국회의정 시스템 등을 구축함

- 몽골 공공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점 지원된 KOICA 전자 정부사업을 통해 몽골의 전자정부 지표(UN EGD)가 2012년 76/193위에서 2014년 65/193위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개선노력 부재로 2018년 92/193위로 하락함
-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파급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적용 부문이 계속 확대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적자원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년 주기로 발표되는 UN 전자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전자정부 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와 국민의 전자정부 참여지수(e-participation)는 2016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high)을 유지하고 있음
  - \* 전자정부 지수 : 2016년 84위(0.51) → 2018년 92위(0.58)
  - \* 국민의 전자정부 참여지수 : 2016년 39위(0.71) → 2018년 65위(0.74)
- 전자정부시스템의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시설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 기능 확장 등이 필요함
- 공무원 채용제도가 미흡하여, 우수인력 채용, 정년 보장 등 인사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정책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차적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몽골 정부 및 정치 부문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기준 180개국 중 93위(37/100점)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몽골 공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부패감소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몽골 공공행정의 발전을 위한 독립적 반부패조사기관의 엄정한 활동 보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 부정청탁금지 법제화,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청렴교육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전자정부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아울러, 몽골 내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및 ICT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미국(MCA) 사업에 우리 기업(SK C&C)이 참여한 사례가 존재함
- ICT분야에서 인력양성,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몽골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4) 교통 분야

#### □ 개발수요

- 2019년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따르면, 몽골의 도로, 철도, 항공 등을 포괄한 교통 인프라 지수는 141개국 중 102위(53/100점)로 열악한 수준임
- \* 인프라 세부지표 : 도로 112위(59.2/100점), 철도 96위(2.9/100점), 항공 97위(31.5/100점)
- 철도는 표준궤(중국 연결노선)과 광궤(러시아 연결노선)로 설치되어 있어 운영 시 광궤·표준궤간 전환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단선으로 설치되어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복선화가 시급한 상황임
- 몽골 내 광업 수송량 증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철도 복선화, 현대화된 신호시스템으로 변경, 전철화, 침목 교체 등의 개발수요가 높음



- 국내공항(23개), 칭기스칸 국제공항을 포함한 총 2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항의 대부분은 활주로 및 진입도로 등 연계시설 미비로 개선이 시급함
- \* 칭기스칸 국제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일본차관)이 2020.10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
-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등록차량(약 53만대) 중 약 60%인 36만대가 운행 중이며, 부족한 공공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교통체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정책 도입이 시급함

##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상 도로, 철도, 항공 등을 포괄한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141개국 중 인프라 전체 6위(92.1)로 전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에 적용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지식은 몽골 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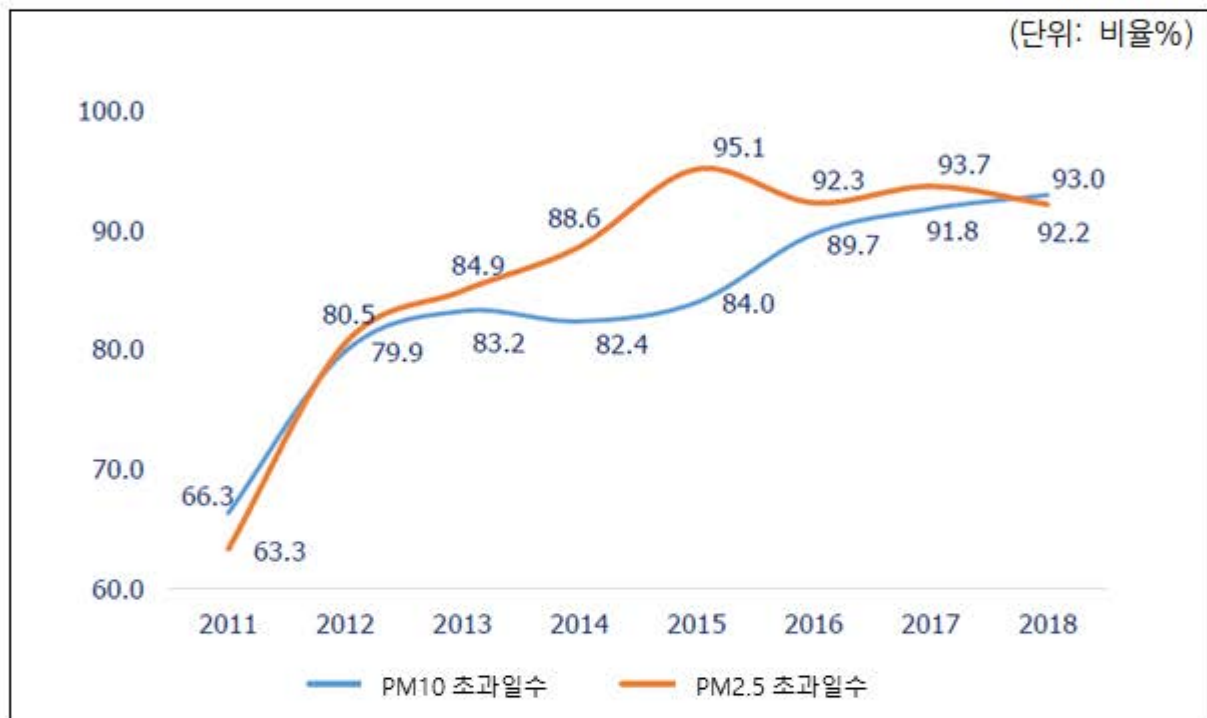
## (5) 기후환경

## □ 개발수요

- 몽골은 비계획적 수도(도시) 확대, 난방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 낙후된 교통수단 등 장비 노후화 문제로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분야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Vision 2050’에도 녹색개발을 키워드로 포함한 바 있음

- 특히,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몽골정부는 수도 내 석탄반입 금지(성형탄 사용), 게르 지역 축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임
- 수도의 미세먼지 PM2.5의 환경기준 초과일수 비율은 2011년 63.3%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92%까지 증가였음

〈울란바타르시 미세먼지별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 비율〉



출처: 몽골 통계청 자료

- 수도 이외에 다른 주요도시들의 환경오염(특히 대기오염)도 심각한 바, 이는 몽골에 풍부한 석탄을 이용한 난방에서 비롯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성이 높고 오염물질이 적은 열원 도입 및 보다 많은 세대에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시스템 개선이 시급함

##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급격한 산업발전과 과밀화로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가, 1981년 연료 황함유 기준 도입, 1988년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정책 시행으로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수준까지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 ‘Air Korea’라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측정망을 보유·관리하고 있음

- 또한, 지방 주요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몽골의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열병합발전과 온수공급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 효율적인 열원 관리 및 열배분에 있어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3 분야별 지원방안

#### (1) 교육 분야

##### □ 교육 프로그램

- 대규모 고등교육기관이나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 지원은 유상 지원을 검토하고, 무상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 제도, 교육과정 개선 및 수립을 중점적으로 지원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기관의 수월성 제고에 필요한 경쟁 모델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
- 이공계 대학 및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내 산학협력 모델 및 학교기업 모델 제시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
- 현지 개발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기관 중 중점 협력 대학을 타 공여기관(UNDP, GIZ, SDC 등)과 공동지원하고 연구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몽골 국가개발계획 핵심과제에 부합하는 숙련인력 개발지원, 고숙련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체제 강화 지원 및  
선도모델 개발,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

##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 보건 프로그램

- 비전염성 질환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행태변화를 위한 인식개선, 식생활개선, 식품관리, 운동 및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제도 수립 및 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몽골 내 주요 질병별 중장기 예방, 진료, 처치 방안 수립 및 음주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실행계획을 수립
- 지방 및 게르 지역 보건, 의료 취약계층 대상인 NGO 협력사업(식생활 개선사업, 음주 및 흡연 폐해 체험관 설치 등) 확대 추진
- 감염성 질병(결핵, HIV/AIDS, COVID-19 등) 선별, 진단, 치료 및 예방 사업 확대 추진

### □ 물관리 프로그램

-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상 지역이 울란바타르 게르촌 지역 및 지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바, 해당지역의 원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조 조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지역 사업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나 타 공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을 고려
- 다만,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의 보급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을 감안하고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개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물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3) 공공행정 분야

#### □ 공공행정 프로그램

- 공공분야 유상지원 사업(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응급구호센터 등)과 무상지원 전자정부 사업과 연계 강화
- 몽골 공공행정 분야 인력양성 및 관리 중장기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몽골의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및 한국의 공무원 및 인사(채용/관리)제도 관련 정책컨설팅 추진
- 공공분야 부패 감소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NGO사업 발굴 및 부패인식 관련 연구 실시

### (4) 교통 분야

#### □ 교통 프로그램

- 무상을 통한 울란바타르 및 몽골 전역 교통 인프라 구축 개발조사 실시, 유상을 통한 실제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하여 유·무상 연계성 강화
- 교통, 물류 인프라(철도 교통안전 관제센터 등 포함) 구축·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실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실시
-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민간 투자 촉진 방안 제시 및 한국 사례에 기반한 재원조달 모델 도입 검토
- 울란바타르 도시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적 대중교통 촉진 모델 소개 및 민간회사 투자 환경 조성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교통 노선 구축 방안에 대해 국제기구 (World Bank, ADB 등)와 공동 연구 방안 모색

## (5) 기후환경

### □ 기후, 환경 개선 프로그램

- ADB, WB 등 다자기구와 연계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협조  
용자 기회 모색, 특히 몽골 정부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앞 프로그램  
차관 지원 검토
- 수도 및 지방 중점도시의 주요 환경오염 원인인 전통가옥(게르) 지역  
축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게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석탄난로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게르주민 대상 공공주택 건립사업 지속 추진
- 대기질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 분석이 가능한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및 관련 전문가 육성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성 및 코이카 등 무상원조와의 협업을 통해  
몽골의 광업 및 폐광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건사업 공동지원 방안 모색



**몽골 장기개발목표** : 지식 기반 다각화된 경제 실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삶의 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개발 계획 추진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기관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li> <li>(SDGs 4.3) 남녀 모두에게 양질의 기술 및 업훈련, 고등교육 접근 제공</li> <li>(SDGs 4.4)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대규모 자원 소요</li> <li>몽골 내 고등 및 숙련기술 인력 수요의 제한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발전계획 수립</li> <li>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운영에 국제적인 체제 적용</li> <li>고등교육기관 내 이공계 전공자 증가</li> <li>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 역량 강화</li> <li>국가자격검정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인증 직업기술교육 제공기관 증가</li> <li>고등교육기관 이공계자 증가</li> <li>양질의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수혜자 증가</li> </ul>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염성 질병 통제 및 관리환경 개선</li> <li>조기 음주/흡연자 감소 및 폐해 인식 제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li> <li>(SDGs 3.4)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li> <li>(SDGs 6.1)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인력 및 역량 미흡</li> <li>식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지방에 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li> <li>의료인 양성 제고 및 교육과정 개편</li> <li>지방 깨끗한 식수 접근성 증가</li> <li>지방 위생시설 접근성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을 지원받은 의료진 수 증가</li> <li>식수 위생도 증가</li> <li>지방 공립병원 수 증가</li> </ul>
공공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 강화를 통한 공공 부문 효율성 증대 및 공무원 채용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공행정 운영 기반 구축</li> <li>(SDGs 16.6) 모든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 지원 후 시설 장비 업그레이드 소요 예산 지속 발생</li> <li>ICT 전문인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재정관리 개선 및 지방 거버넌스 역량 강화</li> <li>공공재정관리 및 사회개발분야 공무원 임용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li> <li>정부통합데이터센터 기능 확대 및 시설 개선</li> <li>공공기관 정보 보안 관련 인력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li> <li>정부통합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처리율 개선</li> <li>정보보안 교육받은 전문인력 수</li> </ul>
교통	○교통(도로, 철도)	- 도로·철도(단선)	- 교통 분야 연구	- 고등교육시설의

<p><b>분야</b></p>	<p>항공)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실행가능한 정책 및 제도 수립 교통시설 유지/보수 관리 역량 강화 - (SDGs 11.2)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p>	<p>인프라가 열악하며, 확장 및 개량에 대규모 재원 소요 - 담당인력의 빈번한 교체 발생</p>	<p>인력 양성 - 혁신적 대중교통 시설구축 (BRT 등) 및 제시 - 도로 복구 도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센터 설립</p>	<p>교통전문학과 개설 여부 - 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 정도 - 교통혼잡도 개선</p>
<p><b>기후환경</b></p>	<p>○ 대기질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 분석이 가능한 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및 관련 역량 강화 - (SDGs 11.3)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p>	<p>- 대기오염의 근본적 원인인 게르지역 재개발에 대한 대규모 재원 소요 - 환경 평가 관련 전문인력 역량 미흡 및 관련 시설 부족</p>	<p>- 오염물질 배출량 - 국립환경연구소 시설현대화 및 기능확대 - 환경전문인력 강화</p>	<p>- 난방시스템 개선 가구수 -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여부 - 국립환경 연구소 환경 전문인력 증가율</p>
<p><b>주요 가정 사항</b></p>	<p>1. 몽골 내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정부 인력 교체 2. 예산 적자에 따른 재무위기 및 경기 침체 발생 3. 법적, 제도적 장애물 발생 4. 동절기 기상조건 악화 및 주요 재난(대기오염, 사막화, 조드/눈폭풍) 발생</p>			



## IV. 이행전략

### 1 협력 및 효과성 제고방안

#### □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

- (원조 조화)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동일국가 사업의 경우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각 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사업에 여러 분야 요소의 적용,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도모

#### □ 유·무상 연계 강화

- 사업간 연계뿐만 아니라,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협력-연수-봉사단 파견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한국 ODA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연계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처·기관 간 협의 지속
- 인프라 건설의 유·무상 사업의 역할분담, 부문별·기능별 분업 등 연계 노력

#### □ 민관협력 활성화

- 민간 기관 고유의 지역 전문성 및 분야 전문성 활용의 극대화
  - 개발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이 성과가 다시 몽골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모델 창출
- 민간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재외공관, NGO,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 연대 강화

## □ 원조일치

- 몽골정부의 행동계획 및 장기개발정책과 연계
  - 중점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몽골 중기예산안을 고려하고 몽골 재무부와 정책협의를 토대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 몽골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등 몽골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원조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입하되, 몽골정부의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 순차적 접근

## □ SDGs 기여

-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

###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 성별에 따른 노동활동 패턴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 ③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된 성평등 관련 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 다양한 관계자와 공유
  - \*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15.8.24) 참고



##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통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 리스크 매트릭스 >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li> <li>○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li> </ul>	상황 발생 시 (차기 대선 '21. 6월 등)
2. 내륙국 및 광업주도 성장으로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물류 및 교통분야사업 발굴 및 지원</li> <li>○ 광업주도 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다각화(농업 등) 지원</li> </ul>	연간
3. 취약한 시장경제체제로 인한 거시 경제적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제 제도 변경 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li> <li>○ 필요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ul>	상황 발생 시
4. 법적, 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li> <li>○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li> </ul>	상황 발생 시
5.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li> <li>○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li> </ul>	반기별
6. 과도한 외채부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WB 및 국제신탁기구의 외채 관련 보고서 지속 모니터링</li> <li>○ 필요시 채무 상환 일정 조정 등 검토</li> </ul>	연간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 < 평가 절차 도식도 >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 1 원조 성과 평가

- 몽골은 우리나라 제14위 중점 협력국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제공한 ODA 규모는 284억 원으로 전체 양자 ODA의 1.5% 차지
  - 무상원조 비중이 71%를 차지하며, 사업 유형은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이 각각 66%와 31%를 차지<sup>2)</sup>
  - 3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KOICA, EDCF, 산림청, 외교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에서 95.1%를 지원

## &lt; 한국의 對 몽골 지원 추이(2014~18) &gt;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무상	집행	32.78	26.14	25.33	25.02	23.56	132.83
	(약정)	27.90	28.25	19.50	18.58	27.74	121.97
유상	집행	0.53	-	5.38	33.78	13.84	53.53
	(약정)	14.35	33.00	227.0	-	-	274.35
계(집행)		33.31	26.14	42.88	25.60	80.10	208.03

자료: OECD.Stat

## 한국의 對몽골 ODA 지원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순지출액 기준

자료: EDCF ODA 통계 사이트

2) 2015~17년 기준



- 2015~17년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은 760억 2,290만 원으로, 전체 지원 중 70.2%를 차지
  - 분야별 지원 비중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27.4%), △교육(25.6%), △공공행정(10.7%), △교통(6.5%) 순
- 우리나라의 몽골에 대한 지원은 2015년 295억 6,999만 원, 2016년에는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497억 6,563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289억 3,231만 원이 지원됨

## 2 수원국 일반개황

### □ 일 반

- 정식명칭은 몽골 울스(Монгол улс)이다. 북서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이루며, 행정구역은 21개주(aymag)와 1개 자치구(hot:울란바토르)로 구성

### □ 정 치

- 2020.6월 제8대 총선에서 현 여당인 인민당이 총 76석중 62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1990년 몽골 민주선거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최초로 재집권에 성공
  - 여당의 재집권을 견제하는 기존의 선거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관리 ▲코로나19 대응 등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찰
- 총선을 승리로 이끈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가 제31대 몽골 총리로 재임명되면서 정국 운영의 연속성 확보
- 여당 인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경제 부양 ▲부정부패 척결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년 대선을 준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 경 제

- **(경제규모)** 2017년 총 GDP 111억 달러(1인당 GDP 3,640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3년 기준 최저점을 찍었으나 광산업 호조 등에 힘입어 2018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이 전망됨
  - 2018년에는 총 GDP 127억 달러, 1인당 GDP 4,098달러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보다 상승하여 총 GDP 141억 달러, 1인당 GDP 4,470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몽골의 GDP와 1인당 GDP는 당초 2015년 124억 달러에서 2016년 1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sup>3)</sup> 실제로는 2017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함
- **(경제성장률)** 2014년 이후 급감하였던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어,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2020년 COVID-19 영향으로 경제성장률(e) -0.5% 예상/WB)
  - 2015년과 2016년, 3%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던<sup>4)</sup> 경제성장률은 각각 2.4%와 1.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감 등이 원인으로 평가<sup>5)</sup>

3) 관계부처합동(2016). 몽골 국가협력전략.

4) 관계부처합동(2016). 몽골 국가협력전략.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3.



몽골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118 (124)	112 (130)	111	127	141
1인당 GDP	달러	3,957 (4,179)	3,703 (4,300)	3,640	4,098	4,470
경제성장률	%	2.4 (3.5)	1.2 (3.6)	5.1	6.2	6.3
재정수지/GDP	%	-8.5	-17.0	-1.9	-3.5	-5.7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0.5	4.6	7.6	8.0
정부채무/GDP	%	..	..	..	..	..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괄호안의 수치는 2016년 CPS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은 2015년과 2016년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12.95억 달러, 2019년에는 11.1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2016년 기간의 경상수지 개선은 2013년 오유틀고이 광산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광물 수출이 확대되며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상승한 데에 힘입음
  - 2016년 몽골 CPS는 2015년과 2016년 경상수지 적자를 각각 10.40억 달러, 25.31억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작은 9.49억 달러,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서비스·소득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를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유틀고이 광산 2단계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대 중국 수출 감소, 서비스·소득 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악화 가능<sup>6)</sup>
- **(외환보유액)** 2017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8.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각각 29.60억 달러, 30.37억 달러를 기록하여 유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5.

- 2017년의 증가는 최근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오유폴고이 광산 개발에 따른 투자 유입,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외화가 조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sup>7)</sup>
- **(외채현황)** 총외채잔액은 2017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68.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각각 272.66억 달러, 275.92억 달러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 241.5%에서 2018년 214.3%, 2019년 195.9%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채상환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

표 3-2. 몽골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Tug	1,970.3	2,140.3	2,439.8	2,395.0	2,352.0
경상수지	백만 달러	-949 (-1,040)	-700 (-2,531)	-1,156	-1,295	-1,114
경상수지/GDP	%	-8.1	-6.3	-10.4	-10.2	-7.9
상품수지	백만 달러	563	1,338	1,490	1,540	1,91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247 (1,330)	1,240 (-)	2,839	2,960	3,037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21,603	27,386	26,889	27,266	27,592
총외채잔액/GDP	%	183.9	245.4	241.5	214.3	195.9
단기외채	백만 달러	2,435	2,579	2,442	2,442	..
외채상환액/총수출	%	20.4	17.7	23.5	28.3	23.7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괄호안의 수치는 2016년 CPS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2018년 국제신용평가 3사(Moody's, Fitch, S&P)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재정수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이나<sup>8)</sup>, 2020년 6월 OECD는 몽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1등급(6등급 → 7등급)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2016년 이후 하향 조정하였던 신용 등급을 상향한 것으로 2016년 국가협력전략과 비교하면 변동 없음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5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0),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 수원현황

- 몽골 ODA 수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는 100%를 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부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 미만을 기록하였음
- 2015년에는 정부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ODA 수원액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여 2017년 28.1%를 기록

몽골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최근 5년(2013~17년)간 국제사회는 몽골에 연 평균 4억 5,691만 달러(총 지출 기준)를 지원하였음.
- 몽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16년까지 연간 3억~4억 달러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억 5,200만 달러 증가

한 8억 3,300만 달러를 기록

- 2017년의 총 지출 증가는 일본과 세계은행의 차관 지출(각 3억 1,500만 달러와 1억 2,900만 달러, 합계 4억 4,400만 달러)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경제정책차관(Fiscal, Social and Economic Reform Development Policy Loan), 울란바타르 신공항 건설 사업(New Ulaanbaatar Int'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풍력발전소 사업(Tsetsii Wind Farm Project) 등에 2017년 총 4억 5,838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sup>9)</sup>
- 세계은행은 경제관리 지원을 위한 개발정책파이낸싱(DPF: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사업에 1억 2,200만 달러의 차관 제공<sup>10)</sup>
- DAC 회원국의 지원비중이 75%에 달하여 양자 대 다자 원조 규모는 3:1 수준

몽골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451	325	300	381	833
DAC 회원국	366	234	228	310	625
다자기구	85	92	72	71	208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지난 5년간 국제사회 지원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9,100만 달러(47%)를 제공하였으며, ADB(9.1%), 세계은행(8.2%), 한국(7.0%), 미국(5.8%)을 포함하는 상

9) OECD Stats. Microdata for CRS(Selected Dimensions: Donor: Japan Recipient: Mongolia Sector: Total All Sectors Flow: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nnel: All Channels Amount type: Constant Prices Flow type: Gross Disbursements Type of aid: All Types, Total Year: 2017).

10) OECD Stats. Microdata for CRS(Selected Dimensions: Don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Recipient: Mongolia Sector: Total All Sectors Flow: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annel: All Channels Amount type: Constant Prices Flow type: Gross Disbursements Type of aid: All Types, Total Year: 2017).



- 위 5대 공여국·기관이 대 몽골 ODA 총액의 약 77%를 차지
- 우리나라는 제4위 공여국으로 지난 5년간 약 1억 6,300만 달러(연평균 3,252만 달러)를 몽골에 지원함
  - 그러나 2016년 약 4,500만 달러가 제공(전년 대비 65% 증가)된 것을 제외하면 연 평균 지원규모는 약 2,940만 달러 수준임

몽골: 주요 공여국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일본	165	115	109	185	517	1,091
ADB	52	56	33	32	38	212
세계은행	12	15	13	11	140	191
한국	32	33	27	45	26	163
미국	92	12	9	7	14	134

주: 총지출액 기준, 2017년 실질가격.  
자료: OECD.Stats

- 미국을 제외한 상위 공여국·기구는 몽골 협력전략 또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 추구(일본, ADB), 광업 관련 지속가능성 제고(일본, 세계은행),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해 대응(ADB, 세계은행) 등이 지원분야로 다수 언급됨
- 2017년 신규 발표된 일본의 국가지원정책(CAP)은 과거 CAP가 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로 다루었던 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개선(분야 1), 울란바타르시의 기능 개선(분야 3)<sup>11)</sup>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수정하였으나, 광산업에 의존적인 경제 개선을 위해 경제 다양화를 지원하고 도심지역의 문제해결에 집중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언급함<sup>12)</sup>

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p.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2017).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p. 2.

- ADB의 신규 국가협력전략(CPS)은 2016년 11월 발표된 ‘몽골정부 행동계획(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2020’에서 언급된 경제기반 다양화, 빈곤개선과 인적개발(사회보호 프로그램 구축과 고용 창출), 지속가능발전 추구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sup>13)</sup> 기존 교통, 에너지, 교육, 보건, 공공 인프라·서비스로 설정하였던 중점분야를<sup>14)</sup>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

표 3-5. 주요 공여국·기관의 몽골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일본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sup>15)</sup>	<b>최상위 목표:</b>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b>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b> 1. 강건한 거시경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2. 친환경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 3. 포용적 사회개발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7-2020 <sup>16)</sup>	1. 경제·사회 안정: 포용적 성장, 기초 사회서비스 개선,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 2. 인프라 개발: 물리적 연계성 개선, 도시의 경제성장 활성화 3.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천연자원 관리 개선, 기후변화 대응 확대, 재해리스크 관리 역량 구축
세계은행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3-17*	1. 광업 지속가능성·투명성 제고 2. 지속가능하고 다방면의 경제기반 구축 3. 사회 취약성 대응(서비스 전달, 안전망 제공, 재해리스크 관리 등)

주: 세계은행은 차기 CPS 수립 중.

자료: JICA(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ADB(201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Mongolia 2017-2020; WB(2012). Mongolia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3-2017.

13) ADB(201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Mongolia 2017-2020.

14) ADB(2012).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Mongolia 2012-2016.

15)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48303.pdf>

16)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20271/cps-mon-2017-2020.pdf>



- 공여국·기관들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부 및 시민사회, 보건, 에너지 분야가 그 뒤를 이음.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운송 및 창고	135	29.39%
교육	48	10.52%
정부 및 시민사회	39	8.55%
보건	31	6.78%
에너지	25	5.40%
농림어업	19	4.12%
산업, 광업, 건설업	17	3.67%
기타 다분야	15	3.35%
물 공급 및 위생	13	2.86%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3	2.76%
기타	36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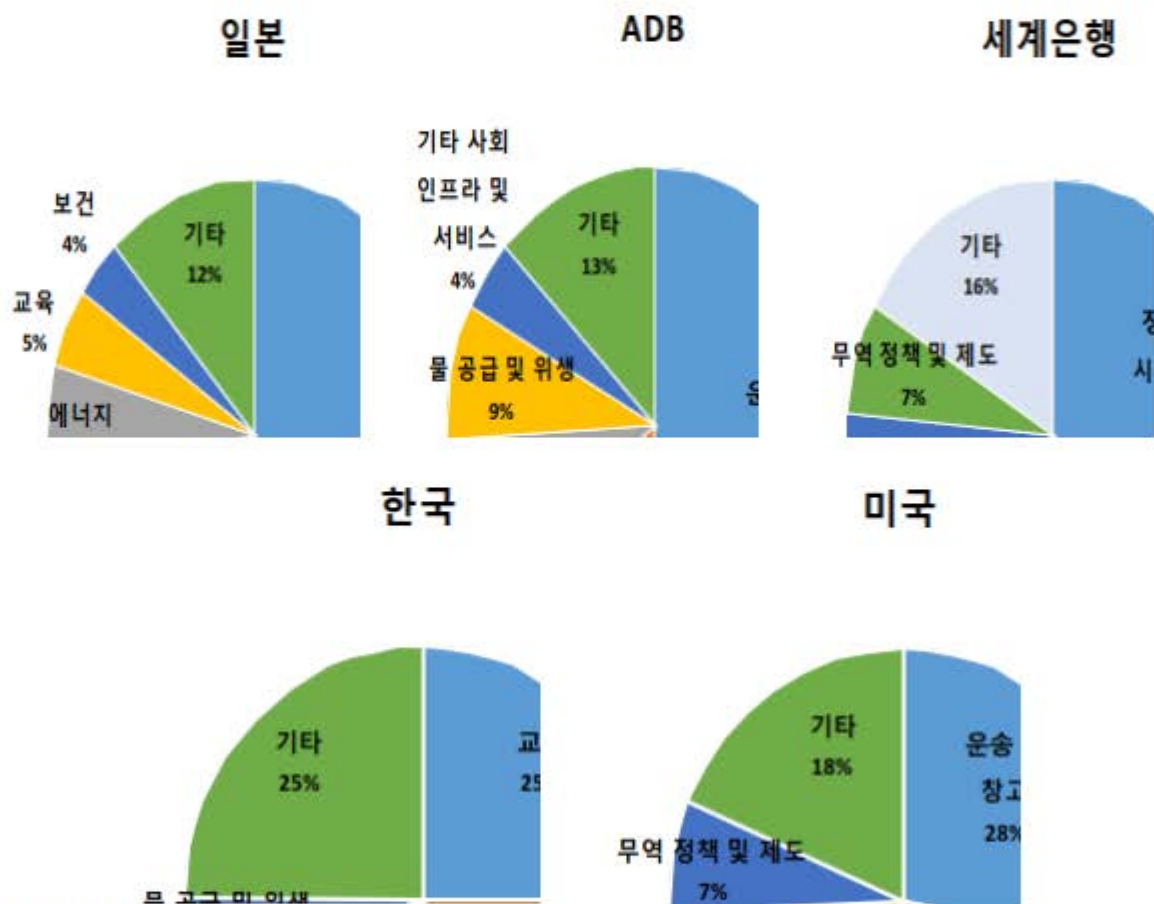
주: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 분야 제외  
자료: OECD.Stat

- 2013~17년 누적 기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3-12]과 같음.
  - 일본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총 양자 ODA의 절반가량(46%)을 제공하였고 그밖에도 일반 예산지원(26%)에 주로 집중하였으며, 그밖에도 에너지(7%), 교육(5%), 보건(4%) 분야에 주로 지원
  - ADB 또한 운송 및 창고 분야에 53%의 재원을 집중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건(12%), 교육(9%), 물 공급 및 위생(9%),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4%) 순임.
  - 세계은행의 경우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38%)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4%), 농림어업(10%), 산업·광업·건설업(8%), 무역 정책 및 제도(7%),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7%) 분야를 주로 지원

- 우리나라는 교육(25%), 보건(19%), 농림어업(14%), 정부 및 시민사회(13%), 물 공급 및 위생(4%) 순임.
- 미국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가장 많은 28%의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20%), 교육(15%), 보건(12%), 무역 정책 및 제도(7%) 등의 분야를 주로 지원하였음.

몽골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3~17)

(단위: %)



자료: OECD.Stat